

“용담댐 방류 수해 피해 보상·제도적 장치 마련을”

무주·충북 영동·옥천·충남 금산 등 4개 지역 단체장들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한 선보상 등 환경부장관에 촉구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군 등 4개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용담댐 방류 피해관련 4군 범대위(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 1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향의 방문하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제도적장치 마련, 조속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큰 물적 피해를 입은 전북 무주군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 4개 지역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환경부를 찾았다.

범대위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 후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모두 포함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현재 진상조사가 적절치 이루어지

지 않고,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인제 사고였음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환경부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확한 원인규명,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강력 요구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며, 지역 주민들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범대책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3주간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이 서명부에는 당초 목표인원인 4개 군 인구의 15%정도인 2만 6,500명보다 훨씬 많은 6만 7,800여명 이상이 서명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책위는 지역의 경계를 없앤 후 확고한 소통체계로 사안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찾기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

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또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과 치수 관리시스템 재정비, 댐하류 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정부에 지속 요구하기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4군이 지역 경계를 허물고 지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을 합친 만큼,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피해보상 규모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상심해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한편, 환경부는 댐 부실 운영·관리 문제가 나오자, 지난달 14일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밝혀냈다고 했으나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피해주민들의 반색을 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용담댐 방류 피해관련 4군 범대위는 지난 1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향의 방문하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제도적장치 마련, 조속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행감 도민제보 창구 운영

도의회,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도정·교육행정 전반
의회 홈페이지 내 열린의회 게시판 이용으로 제보 가능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내용은 해당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내용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지만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개될 수 있다.

제보는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의회 의사당관실) 또는 이메일(just1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제보 관련 문의(063-280-4254)도 가능하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개될 수 있다. 제보는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의회 의사당관실) 또는 이메일(just1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제보 관련 문의(063-280-4254)도 가능하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향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인 만큼 더 살기 좋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제보 창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영일 도의원-수공 관계자들 홍수피해주민 건의사항 청취

지난 18일 한국수자원공사 윤보훈 부사장이 순창지역 홍수피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주민들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수공이 올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은 첫 번째 사례로, 윤보훈 부사장을 비롯해 민경진 금강유역본부장, 오병동 금강유역관리처장, 최동호 영·섬유역본부장, 이종진 영섬유역관리처장이 찾은 것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을 비롯해 수공 관계자들은 홍수피해가 큰 순창군 풍산면·유등면·적성면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적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피해주민 40여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답사했다. 하지만 피해주민 40여명은 수공 부사장을 향해 진정성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특히 윤 부사장을 포함한 수공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한 피해주민 40여명 앞에서 “이번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은 순창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머리숙였다. 또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이 전회위부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피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원시성있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순창 농가의 시름이 깊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연이은 태풍과 홍수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공을 향해 그동안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남원 등 수해피해 복구현장 방문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대표해 소속 의원들(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강민국, 김병욱,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전주해, 조수진)과 함께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다시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의 4차례에 걸친 피해 지역 봉사활동에 이어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5번째 현장 방문이다.

남원시 용전마을, 구례군 구성마을, 하동군 화계장터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등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운천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국민들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캡슐담배 제조·판매 금지’

민주 김수홍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젊은 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



민주 김수홍 의원

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 환복위,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8일 의정 발전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이명연 위원장은 상임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0년도 하반기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수요정책에 대해 전문분야를 살려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정책변형 등 협치를 통한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전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북대학교 광동희 교수, 이주형 교수, 설경원 교수, 전주·완주산립조합 임필환 조합장,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 전주비전대학교 김나림 교수 등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 6명이 위촉됐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